

파키스탄

- 정OO 화OO 선교사

리고 빨래터가 되며 더 나아가 침례를 베푸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개학교 학생들 중,고등학년들만 약 1000여명이 모여, 체육행사를 열어 귀한 침묵과 교제를 나누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혀 사회적인 교류가 없이 지내는 학생들이 귀한 천국의 기쁨을 맞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10여년 전부터 복음학교 형식으로 열린 신학교가 이제 2년전부터 정식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어 그간 30여명의 학생들이 이를 수료하였습니다. 이 신학교를 통해 이곳 사역자들의 영성과 자질을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태양광 우물사역이 이제 총 50개 지역에 진행되어 전기도 물도 없던 곳에서 태양광으로 물을 퍼올

이스라엘

- 김OO 조OO 선교사

이 올라가고 모두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도 아시아인인 저희를 향한 현지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또한 이방인인 저희가 유대인들과 함께 하는 것조차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예배하신 사람들

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번 정도 음식을 준비하여 노숙자 60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 그들의 육체, 정신, 영이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가정과 이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전쟁의 한 가운데서 날마다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랍지역인데 전쟁으로 인해 긴장감

선교부 광고

- 02.25.2024

1.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

▷인도 단기선교: 이번주에 인도 TD 8기 및 신학교 입학식이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CIS (구소련) 목회자 세미나 및 협의회: 장소: 튀르키예 이스탄불(3/10-3/16), 성지순례 4박 5일 (3/16-3/20), S/L: 한기홍 목사, 준비위원장: 장영호 장로 (714.414.8601), 문의: 권팔암 안수집사(714.726.2303)

▷TÜRKIYE (터키) MEGL #14:

3/31-4/8 (TD & 현지교회 방문, 이스탄불 관광), S/L: 한기홍 목사, 렉터: STEVE AWH

안수집사, 문의: 김정철 집사 (714.944.3991)

▷그리스 난민 인카운터 5기 및 사도바울 2차 전도여행 성지순례: 3/31-4/9, S/L: 설성훈 목사, 디렉터: 김태형 안수집사 (213.393.3215), 문의: 케빈김 안수집사(213.272.5984)

▷라오스 개척선교: 5/1-5/10, T/M모임: 3/7부터 매주 목요일 (8회), 5층 선교부 사무실, 팀장: 홍호철 장로, 총무: 이정호 안수집사(213.500.7939)

▷파라과이 인카운터 2기: 6/3-6/10, 문의: 노우종 집사 (213.761.3590), 항공권 관계로 사전등록

▷베네수엘라 AFA 10기 및 어마존 단기선교: 6/29-7/10, S/L: 김도현 선교사, 렉터:김희철 안수집사, 문의: 이충렬 안수집사 (562.665.0607)

3.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GMIMMISSION

WWW.FACEBOOK.COM/GMIMMISSION/

4.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11:15AM. 문의: 의료선교국료선교국

5.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예배

- 온라인 (매월 첫째주 화요일 7:30PM),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 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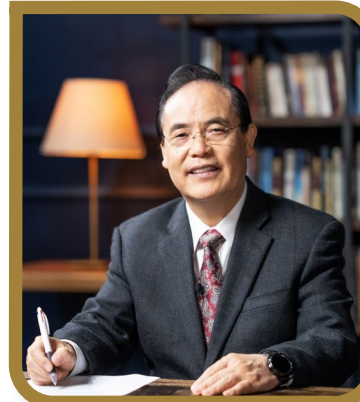
2024년 2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1개국 330명 (자체 파송 79%)

02.25.2024

GRACE 선교소식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탈북민들을 위한 은혜 동산 말씀 축제와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 김문훈 목사)부흥회와 인도 TD와 신학교 입학식을 인도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그레이스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일천번제 새벽기도를 하시면서 날마다 성령충만을 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기홍 목사님 선교일정

- ▷인도 GIGL #8 (2/23-3/1)
- ▷CIS 목회자세미나 (3/10-16)
- ▷터키 MEGL (3/31-4/5)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과테말라

-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

2024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두 달이 다 되었네요. 새해 첫 날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9)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가나안 정복을 눈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과테말라 선교사로 나온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며 제 2기의 사역을 준비하는

첫 해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몇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중미 6개국 교회연합 및 대각성 사역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이 앞으로 10년간 펼쳐나갈 저의 제 2기 선교에 핵심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중미의 젊은 청년들을 말씀으로 깨우는 사역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엘살바도르 그레이스 인카운터 1기에 캔디 49명 팀멤버 35명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인카운터 사역이 중미 6개국 교회연합 부흥사역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작년에 썸뱃고에 세번째로 세워진 은혜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2022년 시작된 신학교 1기

졸업생 14명이 배출되어 2명이 멕시코와 니카라과로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젊은 주의 사역자들이 배출되어 중미의 복음전도자들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더불어 니카라과의 선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니카라과 목회자 컨퍼런스를 유치하기 위해 3월 중순에 니카라과 목회자들을 만나러 현지 답사를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중국

- 조OO 윤OO 선교사

의 사랑을 따뜻하게 나누었고 일년 중 예배당이 가장 북적이도록 주위 이웃과 그 친지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릴 위해 죽으셨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심겨진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특별히 어렵게 믿게 된 자들이 사단의 공격과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의 부재 및 미성숙한 신앙에서 일어나는 여러

오해들로 힘들어 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세요.



작년 연말은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의 특성상 어려운 다른 교회 및 단체들과 모처럼 함께 교류하며 그리스도

몰도바

- 정석영 선교사

몰도바에서 평안의 소식을 전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목표를 정하여 온 힘 다해 정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둘째, 루마니아어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배우고 익히기! 셋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 넷째, 저에게 맡겨진 모든 일(사역, 공부 등)에 최선을 다하기!”등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며 제가 걸어 나아가 할 그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달부터 다시 구제를 위한 푸드 박스와 겨울 땀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사역 등이 실시 될 예정입니다. 이후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

- 송규영 오희숙 선교사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병아리 같은 신입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입생들 선발과정에서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해

서 누구를 선발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들 가정을 일일이 방문 확인하여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28명을 선발하였는데, 작년보다 10명을 더 증원하여 전체 50명의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주간 3일동안 동료 선교사 사역지에서 TD가 진행되었는데 우리 에버그린 선생님들도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

던 학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역과 이슬람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으로 배우고 알게 될 이 아이들 그리고 성경대학 학생들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쓰나오 은혜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직장을 찾아 떠나고 신앙을 결단하지 못하여 떠나는 이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해주세요. 더불어 새해 들어 새롭게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또 잘 성장하여 교회의 기둥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의 시작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심령으로 주님께 이 모든 사역의 매순간이 드러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결단하고 소

또한 사람들의 잦은 이탈로 기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성경 안에 있는 삶

<1분단상 125-2월호-2>

-김대규 장로

현세적인 신앙과 축복을 추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과 배려와 사랑은 없이 세속화 된 신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와 같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말이다.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떤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나의 삶, 생명이 되어야 한다. 구원은 어떤 직분과 사역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성경으로 서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말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내 주변에서도 그렇지 못한데 성경에 바로 서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당연하다. 교회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세속화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온전하게 성경에 서 있지 못하지만 이런 풍조에 고민하고 저항하여 주를 찾으며 말씀이 가르치는 인품과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곧 성경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인 것이다. 이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적 무장이기도 하다. 나의 하루 하루는 사탄과의 영적전쟁이다. 내가 이 싸움에서 매일 승리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며 말씀대로 행해야 승리하는 것이다. 주님도 40일 금식후 사탄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라. 주님도 현실과 유혹과 세상과 사탄에 타협하지 않으셨다.

성경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성결과 거룩한 자세로 사탄의 세상이 된 이 세상의 관념, 사고방식, 삶의 개념 등 내게 물든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과 속성과 뜻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은 바뀌고 변천되어도 사탄의 굴레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합리성, 효율성에 현혹되어서도 아니 되며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향을 쫓아서도 안된다. 이것이 세속된 신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대에 따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에는 필요한 수단이 필요하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성경 안에 있다는 말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성령의 열매로 나의 인품이 성숙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것에 순종하며 주가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의 마음 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

이리 될 때 성령충만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어야 할 나의 모습, 나의 삶인 것이다. 성경 안에 있으려면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죄에 대해 죽어야 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욕심, 야망, 만족, 사고 등 세속적인 것들을 버려야 한다. 주님의 의와 진리가 입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 안에 있기가 불가능하다.

나는 부족한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결단하고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주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인 성경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안다면, 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려한다면 나는 성경 안에서 기도와 말씀대로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 항상 깨어 있어 영적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 안에 사는 자로 해내야 하는 일인 것이다.

